TV토크프로그램에서의 행동자 모델 관한 연구 -'힐링캠프'를 중심으로-

정태섭*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ggam98@chungwoon.ac.kr

A Study on Actant Models in the TV Talk-Show Program -Focus on 'Healing Camp'-

Tae-Sub Chung*
*Dept 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 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그래마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행동자의 모델을 통해 출연자의 관계와 서로의 행동적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분석이 아닌 영상에서 나타난 의미를 텍스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통하여 영상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힐링캠프'의 3명의 사회자와 초대손님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서 그래마스의 행동자 모델에 적용함으로서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1. 서론

"미학적 특성은 언제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존하는 변수(프리드리히 키틀러 저, 윤원화 역,1999 ; 12)[1]"라는 환원론적 발언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시대적 영상미학에 적용해 보고자 함이다.

이미지에 나타나는 주체적 의미와 기술적 조건을 우선시 함으로서 주체가 언제나 대상에 종속된다고 보는 키틀러의 주장을 통해 인간의 지각이 물리적 현실과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고 간주함으로서 영상 이미지의 영역을 다시금 분석하였다.

기존의 영상 이미지의 구성과 형식을 통해 화면안의 인물의 대립과 형식을 주로 연구하였다, 또한 미술적 의미와 분할의 형식을 통해 영상 이미지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물론 영화에서의 영상 이미지의 의미는 방송영상에서 표현되는 영상 이미지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특성과 프레임의 한계를 통해 영상 이미지의 의미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키틀러의 강의에서처럼 하나의 미디어의 표현이 광학적 방식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마스의 이론을 통해 영상에서의 표현을 통한 인물간의 구조를 '힐링캠프'에서 나타난 영상의 의미와 이론을 통해 인물간의 행동자 모델을 통해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힐링캠프[2]

'힐링캠프'는 '힐링'(Healing)과 '캠프'(Camp)의 합성어로 '기쁘지 아니한가'를 기치로 SBS에서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pm11시 타임에 첫 방송을 하였다. 첫 방송 후 본 논문을 작성 할 시점에서는 41회 방송이 되었다.

첫 방송 당시 사회적으로는 여가생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 하였으며, 리조트 문화에서 캠핑의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캠핑문화와 더불어 '힐링'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힐링캠프'는 사회자 3명(이경규, 김재동, 한혜진)으로 구성 되었으며, 초창기에는 3개의 꼭지를 통해 힐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 초청과 세족, 음식으로 정화를 시키는 컨셉을 통해 힐링의 자세와 힐링의 문화를 전달하기 시작 하였다.

현재는 초청자의 심리 상태를 통해 방송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털어 놓음으로서 마음의 정화를 한다는 기존의 토크 프로그램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

다.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 놓음으로서 자신에 대한 '힐링'을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청인사와 사회자 3인의 행동에 대한 모습을 통해 서로에 대한 행동자 모델을 그레마스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영상매체의 미학적 요소

이미지(Image)는 단일의 의미로는 일반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말하며, 다중의 의미로는 영화나 TV등 동영상을 뜻한다.

이미지를 통한 의미전달은 단일의 이미지일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와 수용자의 의도를 통해 이미지의 표현이 전달이 되지만, 다중의 의미로의 이미지인 영상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더불어 음악과 대사 등을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다중의 이미지인 영상매체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영상매체는 이미지에 시간을 첨부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의 연속이다. 이런 영상매체속의 시간을 구분하면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객관적 시간은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물질적 시간이며, 주관적 시간은 관심과 몰두의 강도에 따라 질적으로 인식되는 심리적 시간으로 몰입의 정도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그림 1] 주관적 시간 흐름으로서의 현재

시간의 인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영상으로 편집하면, 시간 인식의 오류는 상황의 강도(event intensity), 상황의 밀도(event density), 경험의 강도(experience intensity)로 나뉠 수 있으며 시간인식의 오류에서 가장 짧으면서 객관적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황의 밀도라고 할 수 있다.

2.3. 행동자 모델

그래마스(Algirdas Julien Greimas : 1917~1992)의 기호학은 영상에 대한 의미보다는 철저하게 텍스트의 분석에 따른 이론으로 각자가 마음속으로 구성하는 의미에서 각자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소통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소통의 요인이 언어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야곱슨의 주장에 대한 의미적 상통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도, 2002: 2, 3)[4]

물론 그래마스의 기호학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분석하여 그래마스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행동자(Actant)는 '어떤 자격이건 또 어떤 방식이로든 간단한 구상체(Figurant)와 가장 수동적인 방식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들이나 사물들을 말한다.' (김성도, 2002: 205)[4]

이 정이는 그래마스가 테니예르의 정의에서 차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마스는 행동자, 반행동자, 부정 행동자, 부정 반 행동자로 구분하여 기호학적 4각형에 투사하였다.

행동자 모델의 기본요소는 형태론과 통사론, 표층수준과 심층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행동자 모델의 기본요소

	형태론	통사론
표층수준	의미소	행동자 모델
심층수준	의소	구성모델 또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소들의 조직)

하지만 그래마스는 행동자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발신자 -------- 대상 -------- 수신자

조력자 -------> 주체 <------- 대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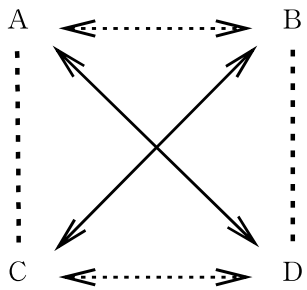
행동자의 모델에서 보면 사유 행위와 사유하는 주체와 구분되는 것으로는 대상(Object)이라고 하며, 생각되고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상이 있으면 항상 주체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능동과 수동의 관계에서 존재하게 된다. 즉 주체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존재이고 대상은 원해지는 존재이다.

이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결속적 관계이며, 이는 상호 전제의 관계 속에서 쌍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실체론적 정의는 필요치 않게 된다. (김성도, 2002: 213)[4]

또한 발신자와 수신자는 이원성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이는 야곱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나타난 것으로 서로 상호간의 존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하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반복적으로 변화가 될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원조자(조력자)와 대립자의 존재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와 다른 의견을 도출하는 부분에 의해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자의 모델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림 2] 기호학적 4각형

이를 통해 그래마스의 기호학적 4각형이 고안되었으며, 이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표상하기 위함이다.

이는 구성모델에 의한 의미작용의 다양한 양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종의 연역적 모델이며 이를 위해 도식화 모델이다. 그림 2의 기호학적 4각형에서는 점선 화살표는 상반성 관계 또는 반대의 관계를 나타내며, 실선 화살표는 모순의 관계, 점선은 함의 관계로 구성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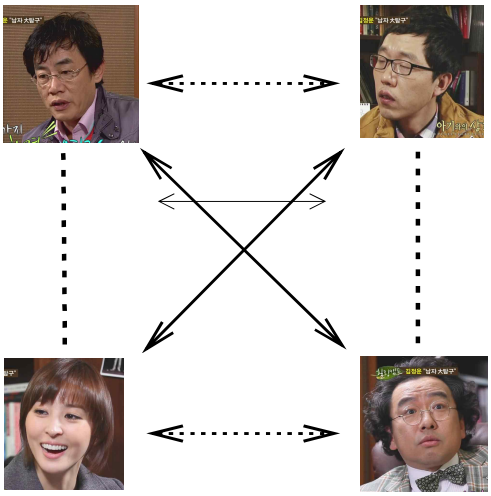
3. 사례분석

본 연구의 사례는 2012년 3월 26일과 4월 2일, 2주간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의 김정운교수가 출연한 방송을 분석한다.

김정운교수 편의 경우는 출연자의 고민이 '남자와의 대화를 못한다'는 자신의 문제를 힐링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의 출연에는 자신의 저서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부분은 스텝의 섭외에 따른 부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이야기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에 대한 의식적 접근을 통해 사회자 3명 중 남자 둘과의 대화를 통해 남자와의 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였지만, 유일한 여성 사회자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유머러스하다를 강조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편집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방법인 그래마스의 기호학적 4각형에 인물을 대입함으로서 인물간의 대립과 호의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림 3] 힐링캠프의 인물간 기호학적 4각형

위의 표와 같이 인물들의 규정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의 인물들의 상호간의 모순과 대립,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구성은 위의 표와 근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이경규와 김제동, 그리고 한혜진의 관계는 이경구가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경규와 김제동은 친하다, 한혜진과 이경규는 친하다, 한혜진과 김제동은 친하지 않다, 한혜진과 김정운은 앙숙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편집해 놓은 부분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제동	⟷ O ⟶	이경규
한혜진	⟷ O ⟶	이경규
김제동	⟷ X ⟶	한혜진
김정운	X	한혜진

물론 개개인의 성향과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나 인물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화면의 구성과 자막의 내용이 서로의 구도에 따른 인물간의 소통과 대결의 모습과 인물의 표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신자 즉 주체는 김정운교수이고 수신자 즉 대상은 한혜진의 대립 구도에서는 이 성립이 존재 할 수 있다.

[표 2] 인물간의 상황 내용

화면	내용
	이경규의 발언(긍정적 발언)
	전체 인물에 인정받음 (긍정적 상황)
	김정운의 인정 (감탄사)
	김정운과 한혜진의 대립
	한혜진의 완패
	김정운과 한혜진의 대립 (자막으로 표현)
	한혜진의 대립 (자막과 표정으로 표현)
	김정운과 한혜진의 대립 (자막으로 표현)
	김정운의 공격적 발언
	김제동과의 순화적 발언
	김정운과 한혜진의 대립적 발언

행동자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대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능동과 수동에 의하여 존재 한다면 요소와 요소(김제동과 이경규)가 다른 요소(김정운)에 의해 결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는 김정운과 한혜진의 관계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조자와 대립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그래마스의 기호학적 4각형 모형은 텍스트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적 본질을 통해 사회적 본질을 개인성과 사회성, 즉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변증법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에서의 의미와 미학적 의미를 텍스트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의미작용이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상에서도 문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마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모든 프로그램(토크형식)에서 같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 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힐링캠프'에서의 구조는 충분히 발신자와 대상 및 수신자와 원조자와 대립자가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신자의 역할과 수신자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루는 프로그램일수록 시청률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의 진행이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분석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면,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프리드리히 키틀러 저, 윤원화 역,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현실문화, 2011

[2]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freetype.jsp?vVodId=V0000350336&vProgId=1000718&vMenuId=1015133

[3] 이상엽, 강우경, 미디어철학, 북코리아, 2008

[4]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 출판부, 2002

[5]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